

KIA '창' vs 삼성 '방패'... '대구 총력전' 펼친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악몽의 한 주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대구 총력전'을 벌인다.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를 만난 지난주는 KIA에는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

시즌 첫 롯데 원정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했던 KIA는 다시 찾은 사직에서 또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

4회초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의 15-15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후 두 경기에서 승리를 더하지 못했다. 기세 오른 롯데 선수들의 공세에 밀린 1위 KIA 선수들이 졸전을 펼치며 연달아 역전패를 기록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치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도 KIA는 6-17 대패를 당했다. 4경기에서 49실점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KIA를 구한 것은 '하늘'이었다.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경기들이 연달아 취소됐다.

손승락 퓨처스 감독과 진갑용 수석코치의 자리를 맞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KIA는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으로 가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벌인다.

KIA가 비로 쉬어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삼성은 KT 위즈와 더블헤더를 소화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결과도 1무 1패로 좋지 못했다. KIA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2위 자리에 변화가 있었다. 삼성이 3위로 내려가고 LG 트윈스가 1.5경기 차 2위로 올라섰다.

2게임 뒤진 삼성과 정면 승부 마운드 위기 속 실책·부상 속출 선수비 후공격으로 1위 수성을 '사직 악몽' 네일 속죄투 나서

주말 경기를 쉰 KIA는 삼성과의 3연전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이 3위로 내려갔지만 2경기 차 밖에 나지 않는 만큼 '1위 수성'을 위해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승리만큼 좋은 것도 없다. 1무 3패라는 지난주 성적도 성적이지만 과정이 너무 좋지 못했다.

불펜의 기록은 계속됐고, 선발도 흔들렸고, 찬물을 끼얹는 실책도 계속됐다. 부상 선수도 또 발생했다. 김선빈이 옆구리 부상에서 돌아오자 이우성이 헬스트링 힘줄 손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마운드 위기에도 KIA의 믿는 구석은 '뜨거운 타격'이었다.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으로 승리를 만들면 된다'였지만 14-1이 15-15가 되는 충격의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패배가 계속되면 타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선수비 후공격의 전략도 필요하다. 마운드가 중심을 잡고, 수비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 견고한 센터라인을 통한 승리 지키기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준비하는 네일이 '속죄투'를 보여줘야 한다.



KIA가 2일 삼성을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시작한다. 앞선 롯데와의 15-15 무승부 경기 선발이었던 제임스 네일이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 나서 부진한 회복을 노린다.

네일은 지난 2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무려 14점의 득점 지원을 받았지만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고승민에게 만루포를 맞는 등 4회에만 6실점을 하며 5이닝 11피안타(1피홈런) 2볼넷 4탈삼진 9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물론 9실점

중 네일의 자책점은 4점이었다고 하지만 '실책' 핑계를 대기에는 애스답지 못한 피칭이었다. 네일은 지난 6월 1일 KT전 이후 4경기에서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

던 네일이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23.2이닝 동안 15자책점을 기록했다. 4경기 평균자책점은 5.70이었다. 네일이 마운드 중심을 잡고, 총력전을 이끌어 줘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주는 제물' 광주FC '만세 삼창'

K리그1 20라운드 제주 2-1 제안 연패 탈출하며 7위로 1단계 상승 선제골 신창무 '임신 세리머니' 가브리엘 결승골·허울 100경기

광주FC가 홈팬들 앞에서 승리의 만세 삼창을 외쳤다.

광주가 지난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신창무와 가브리엘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신창무의 원발이 유효했다. 정호연의 패스를 받은 신창무가 몸을 돌려 전진한 뒤 원발슈팅을 날렸고, 공이 그대로 제주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이 됐다. 시즌 첫 선발 출장에서 기록된 마수걸이 골.

전반 22분 광주가 아쉬운 동점골을 허용했다.

빌드업 과정에서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겼고, 안태현의 오른발 슈팅이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2분 제주 헤이스의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내며 환승을 돌린 광주, 전반 34분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크로스가 골키퍼 앞으로 향했다. 김동준이 편칭으로 쳐낸 공을 잡아 신창무와 배기가 연달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36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울린 공을 안영규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또 골키퍼에 막혔다.

1분 뒤에도 김동준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호연에 이어 문민서에게 연결된 공, 김동준이 득점을 막았다. 문민서가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아쉬워할 정도로 좋은 슈팅이 나왔지만 높게 뛰어오른 김동준의 오른손에 공이 걸렸다.

1-1에서 시작한 후반전, 후반 19분 부상에서 회복한 이희균이 신창무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받고 그라운드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희균은 들어가자마자 활발한 움직임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35분에는 이장호 감독이 베가를 대신해 빅틀을 넣으면서 높이를 더했다.

그리고 후반 44분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이희균이 탈압박소로 제주 진영을 휘젓으면서 공격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김진호가 왼쪽에서 울린 크로스가 문전에 있던 빅틀을 넘어 뒤로 흘렀다. 가브리엘이 몸을 날려 오른발로 공을 밀어 골라인을 넘겼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김경민이 슈퍼세이브로 승리를 지켰다.



광주FC의 가브리엘이 지난 30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44분 동점골을 기록한 뒤 빅틀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프리킥 상황에서 서진수가 낮게 깔아서 찬 공이 수비벽을 지나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몸을 날려 공을 쳐냈다.

100경기 날 승리를 합작한 허울은 "프로에서 아무나 100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축구 인생에 기억에 남을 것 같다. 100경기에서 홈팬들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다"고 기뻐했다.

신창무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신창무는 선제골을 넣고 '임신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예비 아빠'가 됐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신창무는 "선발로 뛰었는데 포인트를 올리고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골 넣고 경기를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쉬운 게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그 덕분에 드라마틱하게 이길 수 있었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제주 원정에서 3-1 승리로 6연패에서 탈출했던 광주는 이번에도 제주를 제물 삼아 연패에서 벗어났다.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궁은 한국

올림픽 전 종목 석권·여자 단체 10연패 '정조준'

양궁은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다.

1972년 뮌헨 대회부터 나온 45개의 양궁 금메달 중 절반이 넘는 27개를 한국이 가져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것을 비롯해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12년 런던에서 금메달 3개씩을 따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단체 4개 금메달을 독식하며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양궁은 '여자 종목'으로 기대를 받는다.

대한체육회가 양궁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등 5개 종목 금메달 '싹쓸이'가 목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승부가 예상된다.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국 양궁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온 바 있다. 불규칙적으로 부는 바람과 잦은 비가 승부에 의외성을 증대시켜 실력 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곤 했다.

전통의 강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가운데 중국, 대만, 인도 등이 한국과 더불어 전 종목 출전권을 따낼 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점도 변수다.

중국 대표팀의 권용화 감독, 인도 백용기 감독, 말레이시아 이재영 감독 등 한국의 '선전 양궁'을 퍼뜨려온 외국인 지도자들의 존재는 대표팀에 가장 큰 위협 요소다. 개최국 프랑스 역시 오선택 전 한국 대표팀 총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던 홍승진 청주시청 감독이 총감독을 맡아 대업에 도전한다.

10년 넘게 남자 양궁 최강자로 군림해온 김우진(청주시청)과 '도쿄 올림픽 2관왕' 김제덕(예천군청),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우석(코오롱)이 남자 대표팀을 구성한다.

리우와 도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으나 개인전에서는 한 번도 올림픽 메달을 따내지 못한 김우진이 개인전 금메달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주목된다.

여자 대표팀에서는 항저우에서 37년 만의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한국체대)을 필두로 남수현(순천시청), 전현영(인천시청)이 사모에 선다.



임시현이 지난 29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양궁 국가대표 관중 및 소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한번도 놓치지 않은 여자 대표팀은 이 종목 10연패에 도전한다.

경기는 세트제로 치러진다. 개인전은 3발 5세트, 단체전은 6발 4세트, 혼성전은 4발 5세트다.

한 세트를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획득해 세트 점수 합산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정규 세트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샷오프 한 발로 승부를 가른다.

양궁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파리의 옛 군사시설인 앙발리르다.

개막식 전날인 25일 예선 라운드를 치르고, 28일 여자 단체전, 29일 남자 단체전, 7월 2일 혼성전, 3일 여자 개인전, 4일 남자 개인전 결승이 각각 열린다.

철두철미한 대회 준비로 이름난 대한양궁협회는 선수촌과 빌도로 '휴게실' 성격의 숙소를 앙발리르 인근 200m 거리에 마련했다.

또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종합 스포츠클럽의 경기장 하나를 통째로 빌려 선수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